

효성 · 현대, 풍력발전단지 공동건설

국내 풍력발전 관련기업들이 협력해 2012년까지 국산 풍력발전기 100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효성, 현대중공업, 한국남부발전은 3월 풍력발전단지 조성 컨소시엄 설립하기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효성과 현대중공업은 총 9000억원을 투자해 2012년까지 2MW 규모 발전기 100기(200MW 규모)를 전국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 정선과 태백 등에는 육상 풍력발전기가, 제주도와 부산 앞바다에는 해상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146곳(2008년 기준) 가운데 국산은 단 1기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750kW의 중형급인 것으로 알려져 풍력발전기의 국산화가 성큼 앞당겨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3/25>